

초고령사회 중장년층 재취업에 관한 연구
: 일본 중장년층의 자격증 취득 현황을 중심으로

김용철·김상현*

상명대학교

jeanbok715@naver.com·enigma92@smu.ac.kr

【요약】

본 연구는 중고령층의 인생2막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탐구를 목적으로 일본의 대표적인 평생교육기관의 자격증 강좌 프로그램 현황을 다층적으로 분석했다. 평균수명 연장으로 100세 시대가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른바 액티브 시니어로 불리는 건강한 고령자들의 은퇴 이후 적극적인 사회 참여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주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건강하고 지적능력을 갖춘 중장년층이 좀 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의 발굴과 준비가 필요하다. 그 방안으로 은퇴후 일자리 확보에 필요한 자격증의 취득은 현실적 노후 준비과정으로 평가 받는다. 이에 초고령사회 일본에서는 중장년층이 노후를 위한 준비로 어떤 자격증을 준비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우리나라 중장년층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일본에서는 50대, 60대가 정년퇴직 이후에 '새로운 자신'을 찾기 위해 제2의 직업을 찾는 작업이 일상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앞으로 은퇴 후 인생 2막을 열어가는 한국의 베이비부머를 비롯한 건강한 시니어가 다양한 직업적 선택을 하는 데 일본의 노후 자격증 준비 현황을 참고자료로 활용할 만하다.

주제어 : 초고령사회, 일본, 중장년층, 노후준비, 자격증

I. 머리말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오는 2025년 초고령사회¹⁾로 진입이 확실시되고 있다. 초고령사회는 부양을 필요로 하는 고령층의 비중이 늘어난 반면 부양을 공급하는 층인 청·중년층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사회 전체적으로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점을 낳는다. 고령화의 원인으로 의료기술의 발달에 의한 평균수명의 증가를 꼽는다. 평균수명의 증가는 고령화의 가속과 함께 노후의 기간²⁾을 연장시키는 효과도 낳는다. 노후 기간의 연장은 노후가 '여생'(餘生)이 아닌 '제3의 인생기'로 인식전환이 진행되면서 현재와 미래의 고령층은 은퇴 이후에도 장기간 소득 창출을 요구받고 있다. '평생현역'이란 이름으로 중장년층의 재취업, 전직(轉職), 창업 등이 증가하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청년 취업과 달리 중장년층의 취업은 연령과 사회적 인식 등의 걸림돌이 존재하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중장년층 재취업을 위한 중앙정부 및 지자체들의 공공지원 정책이 늘

1) UN에서는 고령화율이 21%가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구분한다.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라고 한다. 고령화율은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한국은 2018년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 정년퇴직 등 은퇴 이후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과거에는 여생(餘生)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어나고 있고, 기업들도 정년 연장 등을 통해 중장년층의 일의 기간 연장에 동조하고 있다. 하지만 중고령층, 특히 고령층의 일자리가 공공 작업 등 ‘질 낮은 일자리’에 편중되어 있는 것은 현실이다. 이는 사회경험이 풍부하고 건강한 베이비붐 세대³⁾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액티브시니어(Active Senior)⁴⁾들에게 적합한 노후 일자리라고 힘들다. 액티브 시니어에 적합한 일자리 발굴에 당사자들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일본은 2007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같은 해 일본의 베이비부머인 ‘단카이(團塊)세대’⁵⁾가 정년을 맞이해 은퇴했다. 이들은 이후 15년간 다양한 노후 일자리를 찾아 생계연장 및 노후의 삶의 가치 창출에 나서고 있다. 단카이 세대의 삶의 궤적은 국내 베이비부머와 유사하다. 단카이세대를 포함한 일본의 중장년층들이 길어진 노후 대비를 위한 어떠한 일자리와 일거리를 발굴해서 실천하고 있는 지 연구하는 것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한국에 정책적 시사점을 줄 것이다.

II.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이 연구의 대상은 일본의 중장년층이 은퇴 후 일자리로서 준비하는 자격증의 현황이다. 일본의 고령화율은 2020년 기준 28.7%를 기록, 전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로 이름을 올렸다. 일본은 고령화와 함께 청년층 등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로 인해 노동력의 부족 상황 및 성장잠재력 저하의 어려움에 처해있다. 일본 정부는 대안으로 고령층과 여성을 노동인구로 적극 편입시키고 있다. 2014년 법적 정년퇴직 연령을 60세에서 65세 끌어올렸고, 2021년 4월부터는 근로자가 희망하면 70세까지 일할 기회를 주도적으로 기업에 의무화했다.⁶⁾ 일본의 고령자 취업률을 보면 60~64세 취업률은 70.3%, 65~69세의 취업률은 48.4%, 70세 이상의 취업률은 17.2%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 고령자 85%가 65세까지는 일하고 싶다고 응답하고 있다.⁷⁾

또 일본 기업들은 정년연장 의무화를 한국의 임금피크제와 성격이 비슷한 재고용으로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재고용 이외에 창업, 계약 등을 기업에 권고하고, 고령층의 일하는 방식에 다양성을 위해 직업 교육 강화를 기업과 당사자들에게 주문하고 있다. 실질적인 일하는 방식의 다양화를 위해 일본 중장년층 사이에 증가하고 있는 것이 자격증 취득이다.

3) 1955년부터 1964년 사이에 출생한 약 712만명.

4) 은퇴 이후에도 하고 싶은 일을 능동적으로 찾아 도전하는 50~60대를 일컫는 말로, 적극적으로 소비하고 문화 활동에 나선다는 점에서 ‘실버 세대’와 구분된다. 이들은 외모와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고 여가 및 사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2020년 5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액티브 시니어’를 대체할 우리말로 ‘활동적 장년’을 선정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액티브 시니어가 본격적으로 실버층으로 진입하는 2020년에는 이들의 소비 시장이 약 12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네이버 지식백과)

5) 1947~1949년 출생한 760만명의 전후(戰後) 1차 베이비붐 세대. 일본에서는 전후 베이비부머들을 ‘단카이(團塊)세대’라 부르는데, 1976년 출판된 작가 사카이야 다이치 씨가 베이비부머의 미래를 소재로 쓴 소설 『단카이 세대』에서 유래했다.

6) 정년연장, 재고용, 정년폐지 등

7) 내각부, 2019년 기준,

자격증은 취업에 직결되는 커리어가 될 수 있고 또 자신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장년층에 적합한 재취업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일본의 대표적인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격증 강좌 개설 및 수강 현황, 인기 프로그램 등의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초고령화 시대에 고령층이 다양한 일하는 방식을 통해 소득기간 연장, 건강 유지, 삶의 보람 창출이라는 일거삼득의 효과를 추구하는 모습을 고찰해 본다.

연구방법은 일본의 대표적인 온라인 평생교육기관 ‘유캔(You can)’에서 진행되는 자격증 강좌를 다층적 분석하는 방식을 취했다. 유캔은 취업과 전직(轉職), 창업에 대비하는 150여종의 다양한 자격시험대비 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유캔에서는 매년 수강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자격 랭킹을 발표하고 있다. 인기 자격랭킹의 흐름은 사회적으로 수요가 많은 일자리 트렌드를 제시하고 있어 일본 고용시장에서는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일본이 2007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이후 유캔의 수강생 구성에서 50세 이상 중장년층이 증가하고 있어, 유캔의 인기 자격프로그램 현황은 중장년 층에게 사회가 요구하는 일자리와 역할에 대한 흐름을 짚어 볼 수 있는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일본의 시니어들은 어떤 ‘제2의 직업’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가능해볼 수 있는 자료로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

Ⅲ. 연구내용

1. 유캔(You can) 인기 자격강좌에 비친 초고령사회

유캔은 매년 수강생들에게 인기가 높은 강좌의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그 결과를 들여다보면 일본 시니어들이 그리는 인생 2막과 노후의 라이프스타일이 읽힌다.

2020년 유캔 자격증 강좌 가운데 수강생 전체에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영예의 1위는 ‘의료 사무직’이었다. 의료사무는 의료 관련기관에서 접수, 회계, 진료수가청구서 작성 등의 일을 하는데, 의료사무와 관련된 자격증은 이직이나 재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의료사무직 준비 강좌는 지난 14년간 계속해서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있을 정도로 유캔의 최고의 인기 강좌이다.

의료사무직의 위상은 의료 수요가 많은 노인대국 일본의 상황을 잘 반영해주고 있다. 종합 랭킹에서 차석(次席)을 차지한 ‘(조제)약국 사무’ 강좌 역시 오랜 기간 최상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들 1,2위 강좌의 인기는 고령자가 많은 초고령사회 일본의 의료 수요가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종합 3위는 금융, 부동산업계로의 취업과 이직 때 경쟁력이 되는 ‘파이낸셜 플래너’(FP) 대비 강좌이다. FP의 인기도 고령화로 인한 긴 노후의 재정 설계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인기 강좌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초고령사회 일본의 모습이 더 뚜렷해진다. 종합 랭킹 30위권에 드는 강좌 중 의료부문이 10개를 점유하고 있다. 상기한 의료사무와 조제약국 사무 외에도 요양원 사무, 치매 간병사, 멘탈헬스 매니지먼트 강좌에 제2의 직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 건강·음식과 관련한 직업도 시니어들의 인기 직업군이다. 식생활 어드바이저(4위)와 함께 건강식생활 실천 플래너(13위), 식이요법 코디네이

터(17위) 등이 있는데, 건강식단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많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컬러 코디네이터, 정리수납 어드바이저 등 일상생활 관련 강좌도 인기 랭킹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표1] 2020년 유캐의 인기강좌 종합 랭킹

순위	자격	순위	자격
1위	의료 사무	11위	보육사
2위	조제약국 사무	12위	요양원 사무
3위	파이낸셜 플래너 (FP)	13위	건강식생활 실천플래너
4위	식생활 어드바이저	14위	행정사
5위	의약품 판매보조원	15위	인테리어 코디네이터
6위	MOS스페셜리스트	16위	조리사
7위	부기 3급	17위	식이요법 코디네이터
8위	실용 펜글씨	18위	노무사
9위	공인중개사	19위	정리수납 어드바이저
10위	컬러 코디네이터	20위	아로마테라피 검정 1,2급

[표2] 2020년 분야별 인기강좌

분야	자격
의료	의료사무, 조제약국사무, 의약품판매 보조원, 보육사, 요양원 사무
건강/음식	식생활어드바이저, 건강식생활 실천플래너, 조리사, 식이요법 코디네이터, 아로마테라피 검정1, 2급
생활/패션	컬러 코디네이터, 인테리어 코디네이터, 정리수납 어드바이저
전문직	공인중개사, 행정사, 노무사, 파이낸셜 플래너(FC)
사무기능	MoS 스페셜리스트, 부기3급, 실용 펜글씨

2. 50~60대 시니어가 선호하는 인생2막 직업군

인기 강좌 분석을 50~60대 시니어들에 집중해 분석해봤다. 먼저 50대부터 살펴보면 종합 랭킹과 마찬가지로 의료와 관련한 강좌의 인기가 높았다. 약품판매 보조원(등록판매자⁸⁾)가 1위를 차지했고, 간병사무와 조제약국 사무, 식생활 어드바이저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50대 남성 시니어만을 떼어놓고 보면 그들의 희망 일자리는 여성과 차이를 보였다. 여성은 전체 랭킹에서처럼 약품판매 보조원이 1위였지만, 남성 시니어들은 공인중개사 자격강좌에 가장 많이 몰렸다. 최근 한국에서도 베이비부머들의 정년퇴직이 본격화하면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수험자가 급상승하고 있는데, 이유는 일본과 비슷할 것 같다. 또 여성이 의료 간병직을 선호하는 데 비해 남성은 공인중개사에 이어 파이낸셜 플래너, 행정사, 아파트 관리인이 상위를 차지해 대비를 보였다.

8) 의약품판매 보조원(등록판매자) : 일반의약품 전문판매원. 일본은 2008년 9월 일반약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의약품 등록판매자 제도를 도입했다. 약사 부족과 비자격자에 의한 판매사례 증가 방지를 위해서였다. 등록판매자가 되기 위해서는 관련 자격증을 취득해야한다. 현재 8만여 명에 달하는 등록판매사들이 전국서 활동 중에 있다.

60대도 남성, 여성으로 구분해보면, 여성 시니어의 경우 식생활 어드바이저, 레크리에이션 요양사(요양 놀이프로그램 전문직), 건강식 코디네이터, 조리사 등 주로 식생활과 관련된 직업이 주류를 이뤘다. 60대 남성 수강생들 사이에서는 ‘아파트 관리인’ 최고의 인생2막 일자리로 꼽혔다. 아파트관리인 모집 때 보통 50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정년퇴직자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좁은 문'을 뚫기 위해 관련 자격 외에도 높은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생각의 유연성, 부지런함 등이 요구된다고 한다.

이 밖에 60대 남성이 선망하는 직업 강좌로는 50대와 마찬가지로 공인중개사, 행정사, 파이낸셜 플래너 등이 인기 랭킹에 올랐다. 눈에 띄는 것은 50~60대 남성 시니어들의 인기 강좌에 전기공사설치사, 위험물취급사 등 기술적 전문자격에 대한 인기가 높았다. 기술은 나이를 불문하고 안정적 소득과 일자리를 가져다주고 있음을 일본의 사례에서도 확인해볼 수 있었다.

[표3] 50, 60대 시니어 인기강좌

순위	50대		순위	60대	
	여성	남성		여성	남성
1위	의약품판매 보조원	공인중개사	1위	식생활 어드바이저	아파트관리인
2위	요양(간병) 사무	파이낸셜 플래너	2위	레크리에이션 요양사	공인중개사
3위	조제약국 사무	행정사	3위	요양(간병) 사무	행정사
4위	식생활 어드바이저	아파트관리인	4위	건강식 코디네이터	파이낸셜 플래너
5위	의료 사무	노무사	5위	실용 펜글씨	제2종 전기공사기술사
6위	레크리에이션 요양사	제2종 전기공사기술사	6위	치매 간병사	노무사
7위	파이낸셜 플래너	MOS 스페셜리스트	7위	조리사	MOS 스페셜리스트
8위	보육사	의약품판매 보조원	8위	의약품판매 보조원	의약품판매 보조원
9위	건강식 코디네이터	위험물 취급사	9위	기모노 수선사	위험물 취급사
10위	케어매니저	실용펜글씨	10위	보육사	사회복지사

3. 신규강좌에서 살펴보는 일본의 사회상의 변화

유엔의 신규 강좌들은 일본의 최근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다. 신규 강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건강, 일, 취미, 스타일 등 초고령사회를 살고 있는 건강한 중장년층의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신규 강좌는 앞으로 고령사회에 등장할 새로운 직업과 관련한 뉴 비즈니스들을 점쳐볼 수 있는 참고 자료로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신규강좌 가운데 ‘반려견 사육 스페셜리스트’는 가족의 범주로 들어온 반려견의 세밀한 케어에 대한 수요 증가를 보여준다. ‘세컨드커리어 어드바이저’라는 직업(자격)은 시니어들의 노후 인생설계에 대한 고민과 만족스러운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욕구를 반영하고 있다. 이 밖에 뜨개질 강좌, 고문서 입문 강좌, 어른들의 유채화 강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노후의 시간을 보다 풍요롭게 보낼 수 있는 취미 등 체험소비에 대한 사회적 수요 증가를 예측해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스포츠영양 플래너, 피부 스페셜리스트라는 신규 강좌도 100세 시대 건강한 고령자들의 수요를 예측해볼 수 있는 자료로 삼을 하다.

[표4 2020 인기 신규 강좌]

자격	
1. 온천욕 어드바이저	2. 반려견사육 스페셜리스트
3. 세컨드커리어 어드바이저	4. 뜨개질(손으로 짜는 직조기술)
5. 고문서(古文書) 입문	6. 어른들의 유채화
7. 스포츠 영양플래너	8. 피부 스페셜리스트

IV. 결어

일본은 올 4월 1일부터 기업들에 고용인의 희망 여부에 따라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의무화했다. 또 기업은 정년의 연장 또는 폐지, 계약사원 재고용 이외에 고용인의 이직이나 재취업시 지원, 프리랜서로 독립할 때의 자금지원, 창업 지원, 사회 공헌활동 자금지원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저출산고령화, 인구감소로 노동력이 줄어들고 있는 일본의 일손부족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다.

100세 시대 초고령사회에서 ‘평생현역’이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 되어가고 있다. 일본에서는 50대, 60대가 정년퇴직 이후에 ‘새로운 자신’을 찾기 위해 제2의 직업을 찾는 작업이 일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앞으로 은퇴 후 인생 2막을 열어가는 한국의 베이비부머를 비롯한 건강한 시니어가 다양한 직업적 선택을 하는 데 일본의 노후 자격증 준비 현황을 참고자료로 활용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이소정,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노후준비에 관한 인식과 정책적 함의」, 보건복지포럼, 2009
 변루나, 김영숙, 현택수, 「베이비붐 세대 은퇴후 사회참여 지원정책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 『보건사회 연구』 31호(4), 2011.
 유칸(You can) 홈페이지, <https://www.u-can.co.jp/>
 東京都福祉保健局, 「団塊世代・元氣高齢者地域活性化推進協議会」 最終報告書, 2010.
 佐藤眞一, 「団塊世代の退職と生きがい」 『日本労働研究雑誌』, 2006.